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가뭄대책비 45억 원 긴급 추가 지원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 간 재난안전 협업 강화

거시경제 동향

2013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해외 농정 이슈

ERS, 2013년 세계식량안보평가 보고서 발표 등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콩 재해보험 가입 현황

동향 분석 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가뭄대책비 45억 원 긴급 추가 지원

※ 본 자료는 2013년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가뭄 확산에 따른 가뭄대책비 45억 원 긴급 추가(2차) 지원: 제주(16억 원), 전남(15억 원), 경북(8억 원), 경남(6억 원)」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가뭄피해 현황

- 7월 이후 제주도지역에 강수부족 및 폭염 지속으로 발작물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지난 8.9일 가뭄대책 비용의 일환으로 10억 원 지원
- 국지적 가뭄이 발생한 전남과 경남·북의 해안도서지역 등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물마름 논 2,300여ha와 시들음 발작물 4,200여ha 등에 대한 급수 대책 추진
 - 관정, 하상굴착 등 617개소의 용수원 개발
 - 양수기, 급수차, 물백 등 연 2,403대 장비와 6천여 명의 인력 지원
- 그러나 장마가 끝난 8월 이후에 강수부족과 폭염 지속 발생
 - ※ 7월 이후 강수량: 전국 354mm(평년 456mm의 77%), 전남 233mm(평년 439mm의 53%), 경북 241mm(평년 376mm의 65%), 경남 272mm(평년 476mm의 57%), 제주 37mm(평년 463mm의 8%)
 - 이에 따라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남, 경남·북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2,900여ha의 물마름 논과 4,700여ha의 발작물 시들음 등 가뭄피해 확대 발생

<주요 용수부족지역 현황(8.20)>

구분	계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진도	해남	완도	계	경주	포항	울진	영덕	계	고성	남해	사천	진주
계	7,626	1,966	510	1,203	253	2,534	1,249	961	259	65	1,400	330	260	670	1,726
수도작 (물마름면적)	2,902	812	466	284	62	1,701	887	667	97	50	389	144	-	245	-
발작물 (시들음면적)	4,724	1,154	44	919	191	833	362	294	162	15	1,011	186	260	425	1,726

□ 가뭄피해 대책

-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가뭄지역에 대한 관정 등 용수원 개발과 양수장비 가동을 위한 **가뭄대책비 45억 원**을 **제주 및 전남, 경남북 등 남부 가뭄 지역에 긴급 추가 지원**

※ 제주(16억 원), 전남(15억 원), 경북(8억 원), 경남(6억 원)

- 지원된 가뭄대책 예산은 사·도가 주관하여 가뭄피해가 발생한 시·군별로 배정, 지역여건에 따라 용수원 개발, 양수급수 등 세부적인 대책 수립하여 조기 지원
- 출수기 물마름 논 및 밭작물 가뭄 발생지역의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마무리 영농급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가뭄대책 예산지원 현황(8.20)〉

시도	시군구	합계	국 비			지 방 비 등				기 타 (자부담)
			소계	국고	교부세	소계	지방비			
						소계	소계	도비	시군비	
계		3,680		1,000		2,680	2,180	400	1,780	500
전남	소계	200				200	200		200	
	해남	130				130	130		130	
	진도	70				70	70		70	
경북	소계	446				446	446		446	
	포항	164				164	164		164	
	경주	220				220	220		220	
	영덕	0								
	울진	62				62	62		62	
경남	소계	1,134				1,134	1,134		1,134	
	고성	464				464	464		464	
	남해	270				270	270		270	
	진주	400				400	400		400	
제주	소계	1,900		1,000		900	400	400		500
	제주	1,130		610		520	240	240		280
	서귀포	770		390		380	160	160		220

- 추가적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뭄지역 급수대책을 위한 용수원 개발, 인력·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가뭄대책을 위한 소요예산 지원 등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

주요 농정 이슈_2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 간 재난안전 협업 강화

※ 본 자료는 2013년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사도간 농림 분야 재난안전 협업강화 키로: 농림분야 재난안전대책 사도 부단체장 회의개최」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주요내용

- 8.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 간 '재난안전 협업 강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 **농업재해 사전예방, 대응 및 신속한 복구지원 강화**를 설명하고 **지자체의 철저한 예방·점검 및 신속한 피해 신고·조사에 관심·협조** 요청

※ 재해복구지원 현실화 추진 내용도 설명

- **누수 등 재해 우려 저수지(미흡·불량 등급)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추진**

- 지난 4월 저수지에 대한 긴급 정밀점검 결과, 누수 등 재해 우려가 있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미흡·불량 등급 532개 저수지(시·군 관리 362개소, 농어촌공사 관리 170개소)에 대한 조속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추진

- **하절기 전국 가축방역실태 일제 특별점검 실시에 지자체의 협조 당부**

- 'AI·구제역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4. 30.)·추진 중이며, 8.8일~29일까지 하절기 전국 가축방역실태를 일제 점검 중이므로 지자체에 특별 점검 협조 요청

- **벼 병해충발생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제 실시**

- 장마 및 폭염으로 인해 벼멸구, 흑명나방 등 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들녘 단위 공동방제를 실시 등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필요

- **지자체와의 재난안전분야 협업행정 강화**

- 농림분야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필요

거시경제 동향

2013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 본 자료는 2013년 8월 2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2013년 7월 무역지수

○ **[수출물량지수]** 석탄·석유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전자표시장치, 통신·영상·음향기기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2.2% 상승**

※ (농림수산물) 전년 동월대비 25.9% ↑

○ **[수출금액지수]** 전년 동월대비 1.7% 상승

※ (농림수산물) 전년 동월대비 7.4% ↑

<수출물량지수 및 금액지수 등락률>

단위: 전년 동월대비, %

구 분	물량지수				금액지수			
	4월	5월	6월r	7월p	4월	5월	6월r	7월p
총 지 수	9.9	9.5	-1.4	2.2	5.5	6.6	-1.8	1.7
농 립 수 산 품	2.7	-0.2	-12.4	25.9	-5.8	-7.2	-21.1	7.4
공 산 품	9.9	9.5	-1.4	2.1	5.5	6.7	-1.7	1.7
섬 유·가 죽 제 품	12.4	13.5	3.2	1.8	11.4	12.6	2.6	2.1
석 탄·석 유 제 품	1.2	2.4	-12.2	-10.3	-12.7	-5.0	-6.7	-7.2
화 학 제 품	15.4	9.7	3.0	2.3	9.2	5.0	3.6	4.9
제 1 차 금 속 제 품	-7.3	-4.8	-11.1	-4.7	-13.9	-13.0	-19.0	-13.8
일 반 기 계 제 품	3.4	7.0	-2.7	-1.3	3.8	6.6	-3.8	-2.1
반도체·전자표시장치	2.9	1.7	-3.4	7.7	7.9	7.0	-1.1	8.7
통신·영상·음향기기	52.0	50.7	9.4	27.3	31.2	40.4	3.4	21.8
수 송 장 비	-2.6	4.8	-5.1	-3.4	0.4	7.2	-4.0	-1.8

주: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수정됨.

○ **[수입물량지수]** 천연가스(LNG) 등 광산물 및 정밀기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5.5% 상승**

※ (농림수산물) 전년 동월대비 2.4% ↑

○ **[수입금액지수]** 석유화학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대비 3.4% 상승**

※ (농림수산물) 전년 동월대비 0.6% ↓

<수입물량지수 및 금액지수 등락>

단위: 전년 동월대비, %

구 분	물량지수				금액지수			
	4월	5월	6월r	7월p	4월	5월	6월r	7월p
총 지 수	9.8	3.6	3.0	5.5	0.1	-4.9	-2.7	3.4
농 립 수 산 품	6.9	-1.5	-3.9	2.4	7.1	-2.3	-4.4	-0.6
광 산 품	5.7	-2.9	0.5	-0.7	-8.4	-14.0	-6.6	-0.5
공 산 품	11.5	7.0	4.6	8.9	4.0	-0.2	-0.5	5.6
섬 유·가 죽 제 품	15.6	8.1	4.2	13.5	18.2	11.4	5.5	16.2
석 탄·석 유 제 품	33.2	12.4	0.7	15.2	12.1	-3.4	-2.2	25.6
화 학 제 품	10.9	3.5	3.4	5.2	5.3	-3.2	-1.6	1.7
철 강 1 차 제 품	-1.2	-4.3	-6.5	5.8	-12.2	-15.0	-16.3	-6.8
비철금속괴및1차제품	3.5	3.8	2.1	5.0	-3.6	-4.4	-5.4	-0.9
일 반 기 계	-4.7	6.9	22.0	19.5	-11.1	-1.0	13.1	10.6
정 밀 기 기	-6.7	-11.2	-10.2	-5.4	-8.1	-12.7	-11.3	-6.8
전기 및 전자기기	19.2	17.6	12.1	11.8	13.9	12.7	7.3	7.4

주: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수정됨.

□ 2013년 7월 교역조건지수

○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더 크게 내려 전년 동월대비 1.5% 상승

○ **[소득교역조건지수]** 순상품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수출물량도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3.8% 상승

1. ERS, 2013년 세계식량안보평가 보고서 발표

□ 개요

-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는 UN 식량농업기구(FAO)의 2012년 농산물 생산 및 수입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76개 중저소득국가*의 식량 불안정 수준 평가**
 - ※ 76개국은 세계은행이 분류한 식량원조 수혜국 및 식량안보 불안정성을 경험한 국가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9개국, 북아프리카 4개국, 중남미 11개국, 아시아 22개국 등
- 2013년 76개국의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한 인구는 약 7억7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4%**이며, 이는 2012년 대비 3백만 명이 증가한 수준
 - ※ 식량 불안정 상황: 1인당 하루 음식 섭취량이 2,100칼로리 미만인 상태
 - 2023년 식량 불안정 인구는 8억6천8백만 명으로 2013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 식량 불안정 인구 연앙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억5천4백만 명, 76개국 전체 식량 불안정 인구의 36% 차지
 - 2012년(2억4천9백만 명) 대비 약 2% ↑
 - 동 지역의 평균 식량불안정 인구 비중은 30% 이하이나 국가에 따라 그 비중이 상이하며, 일부 국가의 경우 전체 인구의 70% 이상 차지
- **[아시아]** 4억3백만 명, 76개국 전체 식량 불안정 인구의 57% 차지
- **[중남미]** 약 5천만 명, 76개국 전체 식량 불안정 인구의 7% 차지

※ 자료: USDA ERS(2013.06.27)

2. 미국-중국 닭고기 반덤핑 관세 분쟁 미국 승소

□ WTO,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 제품 반덤핑관세 부당 결정

- **[WTO 판결 내용]** 8월 2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chicken broiler parts)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
 - ※ 반덤핑관세: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덤핑) 그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 상품 국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
 - ※ 상계관세: 수출국에서 생산(또는 수출) 보조금 등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수입 상품에 의해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통상 관세 이외에 보조금액 만큼 할증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 **[판단 근거]** **중국의 부적절한 덤핑 피해규모 추산방법, 사실관계 부족,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기본근거 설명 부족** 등의 근거로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 관세부과 조치는 WTO의 반덤핑 협약 규정 및 WTO보조금 협정 규정에 위배

□ 미국-중국 닭고기 무역 분쟁 경과 일지

- 2009년 9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이 2011년 9월 WTO에 본 문제를 제소
 -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 **43.1~80.5%**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 부과
 - 관세부과 조치 이후 미국의 닭고기 수출물량은 80% 감소,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10년 미국 닭고기 수출업체가 입은 손실을 약 10억 달러로 추정
- 2012년 1월 WTO 산하 무역 분쟁해결기구(DBS)는 제3국가들로 구성된 무역분쟁해결 패널을 구성하고 금년 8월 이와 같은 결정사항 발표

※ 자료: Reuters(2013.06.19), The Wall Street Journal(2013.07.02)

3. EU, 2014~2016년도 양봉업 지원 예산 확대

□ 개요

- 7월 19일 EU집행위원회의 동물제품관리위원회는 EU의 차기 2014-2016년도 양봉 프로그램(beekeeping programs)의 예산지원 확대 결정
 - (지원규모) 2014-2016년도 예산 지원은 연간 3천310만 유로로 2011-2013년도 연간 예산 지원액 대비 110만 유로 증가
 - (유럽연합 확대 반영) 이는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의 가입으로 인한 유럽연합(28개국)의 확대된 예산을 반영한 결과임.

□ 양봉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양봉가 기술지원 및 양봉가단체 구축 지원] 꿀 생산 및 판매 효율성 증대, 생산자간 정보 교류 활성화 도모
- [진드기병 방제비용 지원] 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양봉 관련 질병 방제 및 예방 비용 지원
- [양봉지역 정보제공] 개화기 동안 유럽연합 내 양봉가의 벌통 이동 관리 효율화를 위해 양봉가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의 정보 제공
- [꿀 효과 및 효능 분석] 꿀의 다양한 특성을 연구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통한 판매 증대 도모
- [양봉부문 응용연구 지원] 양봉 및 양봉제품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을 통한 꿀 품질 향상
- [벌통 구매 지원] 여왕벌 생산 및 봉군 구매 촉진을 통해 손실된 꿀벌 개체 수 만회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07.19), Weekly Agra News(2013.07.23)

4. EU, 일반특혜관계 원산지규칙 개정

□ 개요

- [원산지규칙 개정] EU집행위원회는 관세법 및 시행규칙에서 일반특혜 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의 원산지규칙 관련 지역누적 조항(2454/93의 86조) 개정
 - (개정 핵심내용) **지역누적*** 그룹 변경 및 지역누적의 적용 조건[1조 (6)] 추가
 - ※ A국 원산의 재료가 B국에서 작업 또는 가공될 경우 **A국의 원재료를 B국 원산으로 표시**하는 제도
- EU는 지역누적에 포함되는 국가를 **4개로 그룹화**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그 지역 그룹 내 국가 간에서만 지역누적제도 운영**
 - 개정된 지역누적 활용 시 GSP 세제 우대 대상 자격획득 용이
 - ※ 예로 EU로 수출하는 베트남산 제품(GSP원산지 기준 적용 대상)의 부가가치가 50%일 경우, 같은 그룹 I의 캄보디아산(부가가치 20%) 제품을 베트남에서 가공 및 제조하여 부가가치 30%를 창출하면, 지역누적을 활용하여 캄보디아 부가가치의 20%도 베트남 원산으로 간주되어 베트남 원산 부가가치 50% 이상을 만족 → 베트남 GSP 대상국으로 EU에 수출 가능

□ 개정 사항

- 지역누적 그룹 I에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미얀마를 추가**, 또한 지역누적 적용 조건으로 **‘EU에 수출하는 시점에서 지역누적대상이 되는 국가를 수혜국’**으로 명시하는 조건 추가
 - 2014년 1월 1일 이후 수혜국, 즉 GSP 대상국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가는 지역누적 비대상국에 해당
 - 2012년 11월 발효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GSP 신 규정에 의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특혜 대상에서 제외

※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2013.07.11)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8월 19일~23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폭염에 배추 출하 감소, 8월 하순부터 강세 꺾일 듯

- 장마 후 폭염으로 산지의 배추 출하 감소로 인해 장마철보다 배추 가격 올랐지만 8월 하순부터 강세 꺾일 듯. 장마가 끝났지만 고온·가뭄으로 인해 고랭지 배추 품질 급격 저하. 극한 날씨 변화로 무름병 등으로 속이 짓누르는 꼴통배추 증가, 7월 장마로 인해 8월 초·중순 출하될 물량 감소. 이 때문에 산지 출하 물량은 약 15~20% 감소, 최근 배추 도매가격은 장마철보다 더욱 상승*. 7월까지 저장된 물량이 넉넉한 덕분에 배추 물량 감소로 인한 시세 상승 폭은 다소 적어.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물량은 적지만 주로 김치공장 등으로 거래되면서 산지 피해로 인한 가격 상승 억제. 8.20일 이후부터 출하 예정인 배추는 생육이 비교적 양호, 8월 하순부터는 산지 출하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시세는 다시 안정세 전망. 다만 소비·날씨가 향후 시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9월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에 따라 급식 재료 준비로 소비도 함께 증가해 공급량이 늘어나도 시세 안정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또한 8월 중순의 고온현상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따라 날씨가 향후 시장의 큰 변수로 작용

※ 실제 가락시장의 배추 10kg 상품 평균가격은 장마가 한창이던 7월 말~8월 초 평균 7,400원대, 8월 둘째 주에는 1만 원대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8.19.)

□ 고려인삼 씨앗 예외로 ‘줄줄’ …중주국 위상 위협

- 최근 금산에서 중국으로 인삼 종자가 대량으로 밀반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국내 인삼업계 위기감 고조. 업계, 인삼씨앗 중국 유출(밀반출) 물량 30여 톤 추정. 중국에서 우리의 씨앗으로 재배된 인삼이 국내로 대량 반입될 경우*, 더 큰 문제는 종자까지 생산하게 되면** 인삼중주국의 지위에 치명상 입을 우려가 있어 관리 강화 시급.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 인삼농협 등과 협의해 인삼씨앗 투명한 거래방안 모색하는 한편 관세청 등에도 단속 강화 요구, 불법거래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할 계획. 한편 충남 금산 인삼시장, 인삼씨앗이 중국으로 대량 밀반출돼 거래할 물량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6kg('12년) 16~17만 원 → ('13년) 38~45만 원까지 치솟는 등 고스란히 인삼 재배 농가의 피해로 전가. 또한 밀반출 관련, 중국의 인삼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파악하기 위해 '중국 인삼 산업 실태 조사단' 8.14~15일 중국내 지안·통화·항저우 등 인삼 주산지 방문한 결과 중국산 재배방식 우리와 비슷하며, 생산비 적고 수확량 많아 한국산 인삼에 위협적, 인삼 중주국 지위 잃지 않으려면 백삼·태극삼** 해외시장 개척 필요

※ 경작규모 330만㎡, 시가 2천 4백억 원이 넘는 규모로 재배된 인삼이 역수입 되면 국내 업계 큰 타격

※※ 국내에서 재배되는 채소·화훼류의 90% 이상은 씨앗을 구입해 재배하더라도 여기에서 새로 얻은 종자는 상품성이 떨어지게 처리가 돼 있는 반면, 인삼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장시간 소요, 경제성 부족으로 개량을 하지 않는 실정

※※※ △백삼·4~6년근 수삼을 원료로 하여 진뿌리를 다듬고 껍질을 벗겨 씻지 않고 바로 벌에 말린 인삼, △태극삼·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 원형유지 가공 인삼 제품으로 홍삼과 백삼의 중간제품이라 말할 수 있으며, 직립형태

자료 : 농민신문(2013.8.19./2013.8.21.) / KBS NEWS(2013.8.20.)

□ 소비자들 “한우가격 비싸도 만족도는 최고”

- 연구기관 테일러넬슨 소프레스 코리아, 한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한우산업 모니터링 조사 결과, ▲한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비싸다(30.8%)가 가장 많았고, 맛있다(26.5%), 믿을 수 있다(14.8%) 순. ▲육류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복답변)…가격(64.4%)·품질(58.1%)·원산지(49%) 순, 가격이 가장 우위. 한우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체험하는 가격은 아직도 높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의 재정비 필요. ▲만족도 지수…100 기준으로 높으면 만족, 낮으면 불만족을 나타내는데, 한우 243.6으로 호주산 147.9, 미국산 101.8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만족도, 호주산과 미국산 모두 만족 100을 넘어선 것에 주목. ▲연령대별 소비…2.18일~3.25일까지 연령대별 한우고기 구매실태(집에서 먹는 경우) 조사 결과, 평균 57.7% 한우고기 구매. 30대 62.7%, 50대 이상 62%로 60%대를 넘겼고, 40대 54.7%, 25~29세 45.5%. ▲외식

할 때 수입쇠고기 먹는 비중은 '11년 1차 조사 때 83.6%'에 비해 올해 32.7%로 나타나 외식경향에서도 한우와 수입쇠고기 간 가격차에도 불구하고, 충성도 높아져 이는 소비행태가 가정 → 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 이에 따라 소비확대 위해 유통구조 개선으로 한우가격을 지금보다 더 인하, 주 구매층인 30대 이상에 대한 마케팅 강화 필요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8.22.)

□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위해 기술지원단 파견

- 농진청, **축종별 가축진료·사양관리 기술 지원**. 최근 폭염·정전으로 인한 가축사육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국립축산과학원은 사양·환경·질병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 파견. 폭염 피해가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진료, 사양관리, 환경관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 필요. 현장기술지원단은 폭염 중점관리기간인 9.30일까지 지속 운영. 특히 피해가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인 7.8~8월 중순까지 중점기술지원기간으로 설정, 합동지원반 운영. ▲농가에서도 철저한 관리 요구...폭염 시 가축의 고온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이동이나 교배 작업은 기온이 서늘할 때 실시, 과도한 운동 방지, 농장에서는 한낮에 축사 지붕에 물 뿌려주기, 그늘막 설치 등 가축의 체감온도 낮춰주며, 사료섭취량을 높이고, 축사 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민감한 돼지, 닭의 경우 축사 정전에 따른 폐사가 일어날 수 있어 자가발전기 준비하는 등 비상전력시스템 준비

자료 : 한국농정신문(2013.8.19.) / 원예산업신문(2013.8.21.)

□ 영세고령농어업인 연금제도 개선돼야

- **농어업고령화를 높지만 사회안전망 미비**. 통계청, '13.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 35.6%, 어가인구의 고령화율 27.8%, 임가 인구 고령화율 34.1%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11.8%)과 비교 시 2배 이상. 현재 고령농어업인의 영농형태는 독거노인이나 노부부가 소규모 영농 영위, 복지대책 등 사회안전망이 미비해 은퇴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생계유지 위해 영농활동 지속. 이에 김춘진 의원 등 8.14일, 국회에서 '영세고령농어업인 생활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농어업인의 고령화 및 영세화와 관련, **생활보장지원대책** 절실히 이를 위해서는 **보충적 연금제도·경영이양연금제도*** 필요 지적

※ 농지가 없는 임차농이나 농업노동자가 농업경영을 포기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영세농 또는 후계자에게 이양한 경우 등에 대해 조건부로 정부의 기초연금수준에 생활보장의 보충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제도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8.19.) / 한국농어민신문(2013.8.22.)

□ 제주감귤 명품화에 7,000억 원 투입

- 농식품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감귤 유통조직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일원화, 감귤 브랜드 단일화 내용 등을 담은 '제주 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 대책' 발표. ▲유통일원화...현재 감귤 유통·판매는 제주 지역농협 19곳, 감귤농협 1곳, 284명의 산지유통인으로 분산. 올해 안에 명품감귤사업단 발족, 사업단을 중심으로 유통·판매 주체 일원화*, 내년 말까지 지역농협과 감귤농협의 유통·판매 기능을 하나로 묶고, 특히 장기적으로 산지유통인까지 포함시켜 이를 통해 감귤 유통량의 70%를 사업단이 담당할 계획. ▲선과시설 개보수 지원...계열화에 참여하는 일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드럼식 선과시설을 광센서 선과시설로 교체, ▲'선과장등록제' 도입...중소규모 선과장 (현재) 554곳 → (2017년까지) 200곳 축소, ▲90여개에 이르는 감귤 브랜드 단일화 추진, ▲감귤의 연중 생산·공급 체계 구축...시설 및 만감류 재배 면적을 현재 3,000ha → 4,000ha로 확대

※ 유통일원화 위해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현재) 9곳 → (2017년까지) 17곳 확대

자료 : 농민신문(2013.8.19.)

□ 내년 최저생계비 5.5% ↑ ...4인 월163만 원

- 보건복지부, 8.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년 최저생계비 163만820원(4인 가구)'으로 결정.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0만 3,403원, 2인 가구 102만7,417원, 3인 가구 132만9,118원, 4인 가구 163만 820원. 현금급여기준*은 4.2% 인상된 131만9,089원(4인 가구).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14.9월까지만 적용,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에 의한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현행 통합급여체계 하에서는 수급자에게만 집중적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진 반면, 빈곤층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계층)에게도 지원해 오히려 기초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제 해결

자료 : 농민신문(2013.8.19.)

□ 임산물 생산액 전년대비 17.9% 늘었다

- 산림청, ‘2012년도 임산물생산조사’ 결과, **임산물 총생산액 6조 7,000억 원**, 전년대비 **17.9% ↑***. **농용자재, 용재, 버섯, 수신훈 등 증가세**. ▲품목별 생산액 비율...순임목 37.2%, 토석 15.4%, 수신훈(밤, 잣, 대추 등) 11.3%, 조경재(조경수, 분재 등) 10.0%, 산나물(더덕, 도라지, 취나물 등) 5.8%, 용재 5.3%, 버섯류(송이, 표고 등) 4.3% 등의 순. ▲**수신훈**...잣 생산액은 113억 원, 해거리 특성상 전년대비 72.5%↓, 뽕은 감 1,838억 원 (2.6%), 밤 1782억 원(24.9%), 호두 235억 원(45.6%), 대추 764억 원 (11.0%), 산딸기 2718억 원(20.0%) 각각 증가. ▲**산나물**...전년대비 생산량 0.8%↓, 생산량 감소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생산액은 0.3%↑, 도라지 1,538억 원(0.9%), 더덕 968억 원(△9.0%), 취나물 674억 원(18.3%), 고사리 301억 원(△12.1%), 두릅 243억 원(11.5%), 고비 19억 원(18.3%) 각각 증가. ▲**버섯류**...송이버섯은 523억 원, 94.8% 급증, 목이버섯(152.4%) 및 느타리, 능이 등의 기타버섯(144.2%)의 증가로 전년대비 생산량 5.2%↑, 생산액 10.2%↑, 건표고(495억 원, 22.4%↓)와 생표고(1,588억 원, 0.2%↓)는 표고자목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감소 (산림청 관계자)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조성을 위해 **고소득 임산물 품목 개발 지원, 우수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등 지원 정책 추진 계획

※ 특히, 2012년 임산물총생산액에 **‘토석’생산액 1조 원이 최초로 포함**되면서 **생산액 크게 증가**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8.22.) / 농민신문(2013.8.23.)

□ 쌀 관세와 논의 동향

[관세화 유예 종료 다가와]

-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1995년부터 10년 간 쌀 시장 개방 연기
- (2004) 쌀 재협상 통해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대신 개방 시기 10년 더 연장, **내년 말이면 추가연장 기한 종료**
- **쌀시장 관세화 문제가 주요 농정 현안으로 부상**
 - 쌀 관세화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8.13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 개최 (8.20일), (정부) 민관합동기구인 ‘쌀산업 발전 포럼’ 최근 발족, 연말 까지 관세화 전환 여건 점검할 계획
- 정부, 20년간 미뤄온 쌀시장을 개방하면 값싼 수입쌀이 국내로 밀려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쌀 관세화 대책 재검토 시급**
 - 정부 **예상보다 낮은 200%대 관세율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큰 파문 예상**
 - ※ 그동안 정부와 산하 연구기관 등은 2015년부터 400% 이상 높은 관세율을 매기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쌀은 없을 것으로 분석
- (정부·학계) 개방 시기를 더 미룰 경우 의무수입량을 추가로 늘려줘야 하는 상황, **미루면 손해, 쌀 관세화 정해 쌀시장 개방하는 것이 유리**
- (농업관련단체) UR 농업협상의 후속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채 의무수입량 늘리지 않는 현상유지**가 최선

[해결해야 할 과제 산재]

- **자유무역협정(FTA)과의 관계 불명확**
 - 중국 쌀 공략 우려, 미국의 추가 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비
-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만 관세율 계산**
 - 관세율 200%면 국내외 쌀값이 비슷하지만, 국내 쌀값은 하락하지 않고 국제쌀값이 떨어지는 경우 문제 발생
- **관세화 전환에 대한 정부 의지 약하고, 농가 홍보도 미약한 편**
 - (정부) 상대국에 대한 비밀 보장 이유로 관세화의 필요성은 강조하되 쌀 관세에 대해 언급 회피
 - (쌀 관세화 여론조사) **‘관세화에 대해 잘 모른다’와 ‘관세화 미인식’에 대한 응답은 33.7%**(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34.9%**(농경연)* **양 기관 비수**
 - ※ 농경연 최근 쌀 표본농가 1,282명 대상으로 관세화를 물었더니 34.9%(447명)은 “관세화 자체를 모른다” 응답

자료 : 농민신문(2013.8.19.) / 내일신문(2013.8.19., 8.22.) / 경향신문·서울신문(2013.8.23.)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콩 재해보험 가입 현황

※ 본 자료는 2013년 8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콩 재해보험」 13년 가입농가수 증가: 6.3 ~ 7.19 판매결과, 전남북,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가입 증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콩 재해보험 개요

- [가입대상] 콩 재배농가 및 영농법인
- [보장범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자기부담비율] 20%, 30%, 40%형
- [가입기준] 재배면적이 4,500㎡ 이상이고, 제주지역은 6,500㎡ 이상
- [보험료 지원]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에서 지원

□ 콩 재해보험 가입 현황

- [가입농가수] 총 916농가 가입, 전년대비 20농가(2.2%) 증가
 - (원인) 제주지역 가입률 하락으로 101농가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태풍 등으로 피해가 심했던 전남북, 충남지역 가입 농가는 증가하여 전체 가입농가 증가
- [가입면적] 총 1,827ha 가입, 전년대비 371ha(16.9%) 감소
 - (원인) 전북, 전남, 충남지역 증가하였으나, '12년 가입면적의 81.0%를 차지했던 제주지역 가입감소(27.8% ↓)* 영향으로 면적가입률 하락
 - ※ 제주지역 목장용지를 이용한 콩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주요 가입지역인 제주의 당근 가격 상승으로 당근 작목으로의 전환재배가 늘었기 때문
- [보험료] 1,196백만 원, 전년대비 127백만 원(11.9%) 증가
 - (원인) '12년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 및 표준가격 현실화로 보험료 인상에 기인

<콩 품목 가입현황>

단위: 백만 원, ha, 호, %

구 분	'12년 실적 (A)	'13년 실적 (B)	전년대비	
			증감(C=B-A)	성장률(C/A)
가입금액	11,356	10,312	△1,044	△9.2
가입면적	2,198	1,827	△371	△16.9
가입율	9.1	7.6	△1.5	△16.5
보험료	1,069	1,196	127	11.9
농 가	896	916	20	2.2

<지역별 가입실적>

단위: 백만 원, ha, 호, %

구분	가입면적			가입농가수			보험료		
	'12년	'13년	성장률	'12년	'13년	성장률	'12년	'13년	성장률
경기	39	15	△61.5	19	13	△31.6	16	8	△50.0
강원	57	26	△54.4	36	20	△44.4	27	16	△40.7
충북	42	8	△81.0	26	11	△57.7	14	4	△71.4
충남	2	12	500.0	3	7	133.3	1	5	400.0
전북	78	287	267.9	55	189	243.6	32	160	400.0
전남	57	93	63.2	22	66	200.0	25	58	132.0
경북	138	101	△26.8	116	95	△18.1	46	46	0.0
경남	3	0	△100.0	4	1	△75.0	2	0	△100.0
제주	1,781	1,285	△27.8	615	514	△16.4	906	899	△0.8
합계	2,198	1,827	△16.9	896	916	2.2	1,069	1,196	11.9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